



제285호 2024년 6월 16일(나해) 연중 제11주일



© Wikipedia®, Creative Commons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상제나비 (*Aporia crataegi*)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7,22-24

화답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코린토 2서 5,6-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4,26-34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고작 겨자씨라니!

용상동 본당 주임
김기환 요셉 신부



70년대 영국의 유명한 록 그룹 레드 제플린의 노래 중에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모든 반짝이는 것을 황금이라고 생각하는 숙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사려고 합니다”라고 시작한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의 눈을 홀리는 반짝이는 것들을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려 다니면서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반짝이는 것을 잡고 나면 그 광채는 금방 사라져 버리고 환멸감 속에서 또 다른 반짝이는 것을 쫓아간다. 진짜 반짝이는 것,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반짝이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가 그 답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는 아마도 각자가 꿈꾸는 행복에 대한 환상이 충만히 실현된 유토피아 같은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환상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느님 나라라는 말에서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가 겨자씨라는 말에서 환상이 사라져 버리는 환멸을 느끼게 된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니! 예수님이 나에게 겨자씨 한 알을 주시면서 “잘 키워봐.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면 크게 실망하며 그 씨를 내팽개칠 것 같다. ‘고작 겨자씨라니. 반짝이기는커녕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아마도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를 두지 않는 것, 나의 인생 가치 서열에서 최하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인 듯하다.

현대인들이 별 가치를 두지 않고 혹은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영역인 것 같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우리는 우리의 정신 안에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혀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신은 ‘~에 불과해’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습득한 것, 우리가 제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개인 안에 닫혀 있는 체계가 아니라, 신성의 영역으로 열려 있거나 혹은 연결된 체계로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하느님의 영역이 드러나는 곳이며 하느님의 작용하심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다.

그는 무의식을 드러내는 정신 현상인 꿈과 환상을 관찰하면서 하느님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남을 경험과학적으로 밝혔다. 인간의 정신 안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권위와 지혜로 이끌어 주는 중심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밝힌 것이다. 자신은 심리학자로서 인간의 정신 안에서 관찰되는 실체적 현상으로서 하느님을 말하는 것일 뿐 하느님에 관해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인간의 정신을 통해 하느님이 다가온다는 사실로 인해 인간의 품격은 신성의 차원으로 드높여졌으며,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바깥의 반짝이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내면의 반짝임에 주목해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 (페이아르 드 샤르댕 신부)

지켜주세요 <상제나비>

표지 사진 설명



흰나비 무리 중에서 큰 편으로 날개를 폈을 때 수컷은 53~59mm, 암컷은 65~68mm입니다. 날개는 흰색으로 맥은 흑갈색이며 가장자리도 흑갈색입니다. 우리나라가 상제나비의 남방 한계 지역이며 일본, 아시아 및 유럽, 북부 아프리카 등지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에 출현하며 농경지 근처의 산지에서 관찰됩니다.

활짝 날개를 펼친 상제나비 사진을 보니 어릴 때 하늘 높이 띄워 올리던 연이 생각납니다. 나비가 나풀거리며 날아다니는 모습이 꼬리연을 띄워 올릴 때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연을 날리며 미래를 향해 펼칠 꿈도 함께 실어 보내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집니다. 나비가 꽃가루를 실어 나르던 전령사였듯 연은 우리의 꿈을 싣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나비를 보며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러 추억여행을 떠납니다. 상제나비는 추억 속의 나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성본당-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우연과 섭리

목성동 주교좌 본당 보좌
서동호 베드로 신부



우연(偶然).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흔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어났을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우연처럼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때는 9살 무렵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성당에 가게 되었고, 우연하게도 미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참여한 미사에서, 저는 문득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접한 성당, 우연히 참여하게 된 미사, 그리고 그런 우연 속에서 저의 사제 성소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우연히 신부님이 되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던 소년은,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고, 신앙을 배우며 조금씩 그 성소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영양분 삼아,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연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저의 성소는 조금씩 자라났고, 어느새 싹이 터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된, 겨자씨만 한 신앙의 씨앗은 큰 가지들을 뻗어 그 끝에 새들이 머물 수 있는 사제 성소의 나무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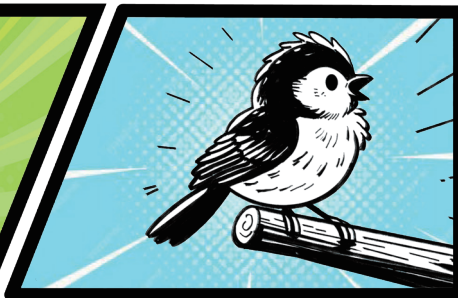
이 모든 시간들이 그저 한 소년의 우연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느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의 인생은 하느님 섭리에 초대되는 기적이었음을, 참으로 오묘한 그분의 초대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되었는지 잘 모를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연을 경험했습니다. 우연처럼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신앙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우연과 같은 시간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였음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심겨진 신앙의 씨앗을 우리가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오묘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서는 싹을 틔워 주십니다. 자고 일어나며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그 여정의 씨앗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섭리일 것입니다. 비록 어떻게 그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싹이 터서 자라고, 줄기에 이삭이 영글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큰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그분께 의탁하는 나날이 되기를 청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마르 4, 26-27)



농은 수련원 성당

목성동 주교좌 성당

레지오 마리에 간부 양성교육

배효심 베로니카 안동 Re. 명예기자



안동교구 사도들의 모후 레지아 (단장 이명우 바르나바, 담당사제 안상기 미카엘, 남상우 토마스 모어)는 6월 1일(토)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에서 <레지오 마리에 간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의는 <세계의 성모 발현 성지를 찾아서>의 저자 최하경 대건안드레아 형제님이 해 주셨고 간부와 단원 49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저자는 교황청에서 인정한 16곳의 성모 발현 성지를 수년간 순례하였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제1강에서는 아일랜드 노코, 제2강에서는 스페인 사라고사와 멕시코 과달루페성지에 대해 강의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성모님의 발현 사건은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잘 안다면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이 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톨릭 미술가회 특강

6월 8일(토)에 교구청 대강당에서 '그림으로 만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가톨릭 미술가회 특강: 강사 박혜원 소피아(서울가톨릭미술가회 회장)>이 있었습니다.



사제피정·사제성화의 날 미사

6월 3일(월)~ 7일(금)에 놓은 수련원에서 <사제피정>과 <사제성화의 날 미사>가 있었습니다.



<피정지도 신부: 장인산 베르나르도 >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6%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등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꺽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젤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The헬시아 헬스&뷰티

허리·목통증, 거북목·골반 교정
통증·성장 관리, 자세·체형 교정
이재현(즈카르야)·천결이(엘리사벳)
예천군 예천읍 맛고을길 40-1
T.054-654-8175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찜&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한양 농약사

모든 과수(사과, 복숭, 자두등)인삼,
고추, 약초, 생강, 수박, 마늘, 양파등
모든 작물 전문 지도, 상담
이병한 프란치스코 010-9110-0657
영주시 원당로 386-19

일성 목업 염소

방목 염소 분양, 염소즙 판매
거세 염소 판매
예천군 풍양면 고천길 203-10
최규택 치릴로 010-8594-8998
양진숙 아네스 010-3542-8991

영덕상회

동광어시장 내 1호, 2호. 각종건어물
신천옥 바오로, 최정혜 데레사
영덕군 강구면 대게로 108-1
전국 택배
T.010-3453-0205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엽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양약국 2층
T.054-855-7582~3







교구장 동정



6월 16일 견진(갈전 마티아)
6월 18일 참사회의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6월 21일 사공군 알로이시오 신부
6월 22일 남상우 토마스 모어 신부

교 구

교구장 견진성사

일 자: 6. 16(주일)
장 소: 갈전 마티아 본당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아름다운 자연과 삶> 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글을 공모합니다.

작품 내용 및 구성:

사진에 담긴 의미,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소개하는 간단한 글

(사진과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

메일- sa3119@nate.com



▶오픈카톡



매일매일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제 단 체

빈첸시오회 2/4분기 정기회의

일시: 6. 16(일) 15:00
장소: 모전동 본당
준비물: 기도서, 텀블러

꾸르실료 월례미사

일 시: 6. 17(월) 20:00
장 소: 의성 본당

2024년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일 시: 6. 22(토) 10:00~ 17:00
장 소: 함창 상지여중·상지미래경영고 체육관
* 교구 내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소성리 평화 미사 안내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일 시: 6. 24(월) 14:00
장 소: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천주교 컨테이너
문 의: 010-3071-6347(상주)
010-4539-8288(안동)

교구 성령 기도회

일 시: 6. 30(주일) 15:00~ 18:30
장 소: 영덕 본당
강 사: 박효재 F. 하비에르 신부

여성 제44차 꾸르실료

기 간: 8. 8(목) 15:00~ 8. 11(주일)
17:00 (3박 4일)
장 소: 농은 수련원
참가비: 1인당 160,000원.
인 원: 각 본당 2명 이내(2명을 기준으로
하되 총 60명 접수 시 접수를 마감)
접수 기간: 7. 12(금)까지
신청 자격: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신청서 참조)
신청처: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수 도 회 · 피 정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 주 금요일, 20:00~ (토) 01:00
강 사: 한연흠 신부, 김웅렬 신부 외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농은수련원 여직원 모집

채용분야: 객실 청소 및 주방 보조
문 의: 054-652-0591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차량성능상태점검 무료 교육(선착순 12명)

일 정: 6. 25(화), 6. 27(목) (총 2일 8시간)
시 간: 18:00~ 22:00
내 용: 자동차기초관리 및 자가점검, 자가정비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농산물HACCP 무료 교육(선착순 18명)

일 정: 6. 22(토), 6. 29(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10:00~ 15:30 중식제공
내 용: 농산물식품 품질관리, 품질 검사실습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온라인마케팅 무료 교육(선착순 24명)

일 정: 7. 6(토), 7. 13(토) (총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사이트 운영·관리를 위한 PPT
카드뉴스,썸네일 등 만들기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식품가공개발 무료 교육(선착순 18명)

일 정: 7. 6(토), 7. 13(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제공
내 용: 식품 개발 개요, 밀키트·간편가정식 등
실습 및 포장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원모집

대 상: 사무직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서류 접수 및 문의: T. 854-1847,
F. 853-0127
안동시 풍산읍 지풍로 1846-8